

혈액투석 환자에서 초기 동정맥루 혈류량이 동정맥루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진국 · 김대용 · 홍성아 · 박무용 · 최수정 · 황승덕

The Effect of Initial Access Blood Flow on the Survival of Vascular Access

Jinkuk Kim, Daeyong Kim, Seongah Hong, Mooyong Park, Soojeong Choi, Seungduk Hwang

Soonchunhyang University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목 적 :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적절한 혈로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예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동정맥루의 기능 이상을 발견하는데 있어 정기적인 혈류량 감시가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저자들은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한 신환에서 초음파 회석법을 통해 측정된 동정맥루 혈류량이 동정맥루의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 2004년 이후 본원에서 혈액투석을 치료를 시작한 32명의 신환을 대상으로 초음파 회석법을 이용하여 동정맥루의 혈류량을 1개월마다 측정하였다. 동정맥루를 처음 사용한 시점과 1개월, 2개월 후 측정된 한 혈류량의 평균치를 600 mL/min을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서 각 군의 임상적 특성과 동정맥루의 생존률과 1차 유지율 (primary patency rate)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동정맥루 혈류량이 600 mL/min 미만인 군 (n=14)에서 동정맥루 사용 후 1년간 평균 혈류량은 487 ± 105 mL/min으로 600 mL/min 이상인 군 (n=18)에서 측정된 918 ± 282 mL/min보다 낮았고 (p=0.000), 1년 동안 시행한 경피적 혈관성형술의 건수는 동정맥루 혈류량이 600 mL/min 미만인 군에서 1.07 ± 0.88 회로 600 mL/min 이상인 군에서 시행한 0.27 ± 0.45 회보다 많았다 (p=0.000). 동정맥루의 생존률은 600 mL/min 미만인 군에서 1년 83.3%, 2년 69.4%였던 반면, 600 mL/min 이상인 군에서는 1년 92.9%, 2년 92.9%로 높게 나타났고, 동정맥루의 1차 유지율도 600 mL/min 미만인 군에서 1년 35.7%, 2년 28.6%였던 반면, 600 mL/min 이상인 군에서는 1년 64.3%, 2년 51.4%로 높게 나타났다.

결 론 : 초음파 회석법을 이용한 혈류량 측정은 동정맥루의 생존률을 조기에 예측할 수는 신뢰성이 높은 검사이며, 혈액투석 환자에게서 동정맥루 기능 이상을 조기에 감시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성이 높은 검사법이다.